

“단군은 한민족 뿌리...역사 바로잡을 때”

장두석 개천절 행사 집행위원장



“남북한 정상이 민족화합을 위해 손을 맞잡는 시점에 치러지는 개천절 행사는 국운을 결집하고 나라의 중심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두석(70) 개천절 행사 집행위원장은 1일 “단기 4340년을 맞아 광주 상무지구 5·18기념공원에서 3일 열리는 ‘국조단군 대제, 개천절 행사’는 한민족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개천절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장씨는 “단군”을 단지 신화적인 인물로 간주하는 기존 역사학계의 시각을 아쉬워했다.

“지구촌 어디에도 뿌리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단군은 우리 민족의 선조이고 뿌리입니다. 이제는 일제 강점기 때 친일사학자들에 의해 왜곡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장 위원장은 현재 단성전(檀聖殿) 증축 사업을 벌이고 있다. 광주 상무지구 여의산 정상에 있는 단성전의 규모가 6.6m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광주가 의항이고 역사의 고향이라고 하지만 현재의 단성전은 전국에 있는 단성전과 비교할 경우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개천절 행사 참여도가 가장 낮은 곳이 광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부터 단성전을 중심으로 민족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모금활동을 벌여 1억2천여만원을 모은 만큼 조만간 단성전 증축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장 위원장은 현재 국론이 분열되고 계층간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국민들을 결집할 수 있는 통일된 사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전국체전’ 세번째 성화 채화 맡은 7선녀중 주선녀 채미옥 씨

“혼 담긴 춤사위로 예향 광주 알리기 최선”

“긴장되고 흥분되지만 광주를 대표할 수 있어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제88회 광주전국체전 4일 오전 무등산 영의 헬기장에서 진행될 세 번째 성화(문화예술의 불) 채화를 맡은 7선녀 중 한 명인 채미옥(여·32)씨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한달간 성무·성화 채화 연습

지난 1993년 동산여고 2학년 무용부에 재학 중이던 채씨는 제74회 광주전국체전에 참석해 체전을 알리는 피켓을 들며 손님들을 맞았던 데 이어 두 번째로 체전에 직접 참석한 것이다.

“당시엔 너무 어려서 내가 무엇을 해야했는지 잘 몰랐지만 이번 체전에서 나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바로 광주의 대표로서 14년 만에 열리는 광주전국체전을 전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진행된 두 번째 성화(민주평화의 불)에서 이미 채화를 경험한 채씨는 광주시립극단 무용부에서 8년째 활동 중인 베테랑이다. 9월 초 광주시립극단 송순섭 단장이 19명의 무용부 중 7명의 단원들을 뽑은 후 한 달간 성무(聖舞)와 성화 채화를 연습해 지난달 2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두 번째 성화를 도왔다.

채씨는 “10월과 11월에 5개 이상의 공연 스케줄이 잡혀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2시간

이상씩 강행군을 했다”며 “전통과 예술이 숨쉬는 문화도시 광주의 위용을 우리가 전한다며 팀원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고 연습에 임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성화에서 출 성무는 하늘에서 내리온 신성한 선녀들이 광주의 심장인 무등산에서

시민 관심·참여가 성공의 관건

정기를 받아 춤을 추며 광주전국체전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내용으로 약 8분간 진행됐다. 성무가 진행된 후 주선녀 채씨는 채화경에서 성화 봉을 이용해 채화한 후 광주시청 임우진 행정부시장에서 전달할 예정이다.

채씨는 “14년 만에 광주에서 치러지는 전국



체전인 만큼 광주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라며 “7선녀들도 아름다운 춤사위로 광주 알리기에 최선을 다할 테니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화도시 광주를 빛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올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는 박태환”



대한항공 기내지 선정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이 올해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엔터테인먼트 히트 브랜드’로 뽑혔다.

1일 대한항공 기내 엔터테인먼트지 ‘비온드’가 창간 1주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 45명에게 의뢰해 평가한 ‘2007 국내 엔터테인먼트 히트 브랜드’에서 스포츠 부문에서 박태환, 영화 부문에서 ‘미녀는 괴로워’가 선정됐다.

“장운정 언니 같은 국민가수 될래요”

KBS 토요노래자랑 3연승 완도 트로트 신동 6세 김바다 양

“국민가수가 되고 싶어요.”

지난달 29일 KBS 아침마당의 ‘토요 노래자랑’ 코너에서 3주 연속 우승을 차지한 김바다(6·완도군 완도읍·사진)양의 장래희망이다. 김양은 외할아버지 김금영(54)씨와 ‘선장과 바다’라는 팀을 구성, 대회에 참가해 3연승을 일궈냈다.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탄 뒤에 김양은 ‘전국구 스타’가 됐다. 1일에는 경기도 양주시청 앞에서 열린 노인잔치에 초대가수로 참가한 것. 오는 18일에는 완도군 생일면의 노인들을 찾아가 열 예정이다.

현재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외할머니 이금자(52)씨는 “1승도 생각지 않았는데 세 번이나 연속 우승을 하게

꽤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다”며 “이전에도 군내의 조그만 행사들에 가끔 초청을 받았는데 더 바빠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외조부모와 3년 전부터 완도에서 사는 김양이 노래에 소질을 보인 것은 2년 전. 김양은 TV에서 본 노래들을 흥얼거리고, 음을 정확히 기억해냈다. 김양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신세대 트로트 가수 장운정. 좋아하는 노래는 장운정의 ‘어머나’, ‘짹짹’ 등이다.

이씨는 “너무 어린 아이가 유행가를 부르는 모습이 씩 좋진 않았지만 소질을 보이는 것 같아 피아노 학원에 등록시켰다”고 말했다. 김양은 동네에서도 ‘뚝뚝순이’로 통한다.

뚝순이 보다 더 뚝뚝하다고 해서 불



여진 별명이다. 3살 때부터 스스로 일기를 썼는가 하면, 4살 때는 혼자서 군내버스를 타고 유치원이나 학원에 통학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前 헤비급 챔피언 포먼-홀리필드 사업에서도 한판 대결

프로복싱 전 헤비급 세계챔피언 에반더 홀리필드(45·미국)와 조지 포먼(58·미국)이 사업에서도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됐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홀리필드는 최근 유타주의 그릴 생산업자와 손잡고 자신의 이름을 붙인 ‘에반더 홀리필드 리얼 딜 그릴’ 판촉에 나섰다. 지난주부터 TV 광고에 출연해 직접 앞치마까지 두르고 이 그릴을 광고하고 있다.

직접적인 경쟁자는 1995년부터 ‘포먼그릴’을 팔고 있는 포먼. 이 그릴은 그동안 1억 달러 어치 이상 팔려나가는 대성공을 거뒀다.

홀리필드는 광고 뿐만 아니라 신문 인터뷰에서도 “‘포먼그릴’도 좋은 제품이지만 어차피 그릴은 최선 제품이

가장 좋은 것 아니냐”고 포먼의 약을 올리려고 있다.

두 복서는 링 위에서도 승부를 겨룬 적이 있다. 홀리필드는 1991년 4월19일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 컨벤션센터에서 포먼과 헤비급 통합 타이틀 1차 방어전을 벌여 3-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또 다른 대결도 다가오고 있다. 포먼은 1994년 만 45세 10개월의 나이로 세계복싱협회(WBA)와 국제복싱연맹(IBF) 통합 챔피언이 되면서 ‘최고령 헤비급 세계챔피언’의 영예를 누렸다.

홀리필드는 만 45세 생일을 6일 앞둔 10월13일 모스크바에서 세계복싱기구(WBO) 헤비급 챔피언 스티브 라히모프(32·러시아)에게 도전한다.

007의 ‘미스 머니페니’ 맥스웰 타계



‘007’ 시리즈를 오랫동안 지켜온 루이스 맥스웰이 지난달 29일 호주의 한 병원에서 타계했다. 향년 80세.

루이스 맥스웰은 1962년 ‘007’ 시리즈의 첫 번째 영화로 손 코너리가 주연을 맡았던 ‘살인 남버’부터 1985년 로저 무어가 연기한 14탄 ‘뷰 투 어 걸’까지 본드의 상관인 M국장의 비서 미스 머니페니 역을 20년 넘게 즐겁 지켜왔다.

- 인사
- ◆병무청
 - ◇팀장급 전보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관 정찬호
 - ◆대신증권
 - 〈승진〉 ◇전무 ▲양홍석 ◇이사대우 ▲홍보실 조경순 ▲총무부 김승규
 - ▲SF부 유광조 ▲법인영업부 박천원 ▲상품개발실 문남식 ◇차장 ▲순천지점 김갑식 ▲광양지점 정은중 ▲여천지점 김학연
 - ▲하당지점 김양훈
 - ◆대신투자신탁운용 ◇상무 ▲이형철
 - ◆대신경제연구소 〈승진〉 ▲금융공학실 과장 최종석

살레시오 수녀회 한국 진출 50주년 ‘꿈나무 큰 잔치’



1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살레시오초등학교(교장 류현숙 수녀) 강당에서 열린 살레시오 수녀회 한국 진출 50주년 기념 ‘2007 꿈나무 큰 잔치’에 참가한 살레시오 오케스트라단이 관현악을 연주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시 선수단 해단식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광주시 참가 선수단 해단식이 1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시립장애인복지회관 체육관에서 열렸다. 광주시 선수단은 선수 및 임원 203명이 참가해 금메달 33, 은메달 30, 동메달 22개를 획득, 역대 최고인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장철형(전 대한시멘트 대표이사)씨 차남 현호(코리안리저 보험사)군 이근희씨 3녀 서연(대한항공)양=6일(토) 오후 1시 르네상스 서울 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
- ▲정지홍씨 차남 남원(상수도광산사업소)군 김남호(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씨 차녀 혜진양=6일(토) 낮 12시 마스터스 관광호텔.
- ▲공병철(성균관 부관장)씨 3남 남구(특유성하우징 실장)군 윤형상씨 차녀 희나양=6일(토) 낮 12시 무등산관광호텔 4층 연회홀.
- ▲차정순(한국화학 여수공장)씨 장남 영조군 전기태씨 장녀 은경양=6일(토) 오후 1시 여수시 신원동 여수블루루교회.
- ▲나문준(전 주) 권승설씨 대표이사)·김해순(광주 서초동 교사)씨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일시보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 보호원하는 경우,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토불이. 368-2323

- ▲광주사대부중 제 4회 동창회(회장 전성수) 모임=4일(목) 오후 7시 백운산 회관. 222-4569
- ▲구례중 18회 동창회(회장 박노창) 정기총회 및 만남의 장=6일(토) 오후 1시 구례북중 체육관. 010-9398-2229
- ▲복성중 제 6회 동창회(회장 강대식) 월례회=6일(토) 오후 6시30분 목석원. 232-5224

향우회

- ▲재광 고흥군 향우회(회장 최은재) 화합 한마당 잔치=3일(수) 오전 9시 호남대 쌍촌캠퍼스.
- ▲재광 나주향우회(회장 최영관) 이사회=5일(금) 오후 6시 탑하루스. 367-8881

모임

- ▲인터콤 비전스쿨 졸업생 전체 모임=8일(월) 오후 7시 남문교회 2층.

모집

- ▲광주 YMCA 오버랜드 모델링 창단 기념 제 1회 김홍철 모델 강습회 참가자 모집=4·5일 오후 7시~9시 광주시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3층 공연장. 문의 011-9608-0789
- ▲황실 십자수 무료 수강생 모집=쿠션·액자·지갑·열쇠고리·휴대전화 줄 제작 등 무료 교육. 문의 512-4000, 528-8500
-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 북구 지역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북구지역 결혼 이주여성 30명. 한글·컴퓨터·사회=5일(금) 오후 6시 탑하루스. 367-8881

고졸격/제비용/대형주차장/정성껏 섬기겠습니다 -대표주제원-

금호장례식장
T.(062)227-4000 (24시간예약)

사전예약 하신 분에 사용료의 20%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집단 상담·미술 활동·명절 행사·가족 나들이 등 프로그램 무료로 진행. 문의 267-3700

▲민요와 장구 사랑 회원 모집=남도 서도 경기민요를 배울 사람 모집. 사회 봉사 활동에 뜻있는 희망자 환영. 019-601-6989

부음

- ▲황양임씨 별세 신현년(평산신씨 광주·전남 회사회장·세무사)씨 모친상 봉철(천안 성심병원 원장)·윤철(조선내과회 부장)·정식(미국 구글연구소 부장)·승식(LG전자 과장)씨 조모상=발인 3일(수) 금호장례식장 402호. 227-4314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골묘특별분양

☎ (062) 521-1100